

## 6

# せっぱくりゅうざん せっぱくそうざん 切迫流産・切迫早産 (절박유산・절박조산)



## せっぱくりゅうざん 切迫流産

流産になりそうですが、流産にはなってはいない状態のことをいいます。妊娠22週未満に、出血があったり、お腹が痛くなったり、などの症状がありますが、妊娠は継続できるかもしれないと判断されている状態です。

## せっぱくりゅうざん ちりょう 切迫流産の治療

妊娠12週までは流産に有効な薬はないといわれているので、治療は安静が原則です。

## せっぱくそうざん 切迫早産

早産になりそうですが、早産にはなってはいない状態のことをいいます。妊娠22週以降に、お腹が何度もはったり、お腹がはるときに痛みがあったり、膣から出血したりなどの症状がある状態ですが、それらの症状がなくても子宮の出口が開いたり、頸管長という子宮の出口の長さが短くなって、切迫早産と診断される場合もあります。なかには、破水して早産になってしまうこともあります。つまり、「赤ちゃんが生まれるにはまだ早い時期に生まれてきそうな状態」のことをいいます。

## せっぱくそうざん ちりょう 切迫早産の治療

治療は、安静入院が原則で、お腹のはりを止めるための薬を点滴します。外来では、飲み薬を使用することもあります。また、膣の感染が原因と判断されたときは、抗菌薬を使用することもあります。お腹はっていないのに子宮の出口が開いていってしまう場合は、手術で子宮の出口をしぼることもあります。

## 절박유산

유산이 될 것 같지만 유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. 임신 22 주미만에 출혈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는 등의 증상은 있지만 임신은 계속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입니다.

## 절박유산의 치료

임신 12 주까지는 유산에 유효한 약은 없기 때문에 치료는 안정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# 절박조산

조산이 될 것 같지만 조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. 임신 22 주 이후에 배에 몇 번의 당김이 있거나 배가 당길 때 질에서 출혈이 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증상들이 없다 하더라도 자궁의 출구가 열리거나, 자궁경관 이라고 하는 자궁 출구의 길이가 짧아져 절박조산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 파수가 생겨 조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「아기가 태어나기에는 아직 빠른 시기에 태어날 것 같은 상태」를 말합니다.

## 절박조산의 치료

치료는 안정 입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의 당김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주사로 맞습니다. 외래의 경우 먹는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또한 질 감염이 원인이라 판단될 시엔 항균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배가 당기지 않는데 자궁 출구가 열릴 경우엔 수술로 자궁 출구를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お腹のはりを止めるお薬を使用すると動悸がしたり、体が熱くなったり、手がふるえたり、などの副作用が出ることが多いのですが、だんだん症状はかくなるっていきます。

배의 당김을 멈추게 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등계(가슴이 두근거림)가 있거나, 몸에 열이 나거나, 손이 떨리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상태는 나아집니다.

とくに妊娠34週未満の場合、もし赤ちゃんが生まれたら、まだ自分では十分に呼吸ができないので、入院してお腹のはりを止める薬を点滴しますが、早く生まれた小さい赤ちゃんが入院できる施設(新生児集中治療室: Neonatal Intensive Care Unit: NICU)がある病院にうつ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。

특히 임신 34 주미만의 경우에 혹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, 스스로 충분히 호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원하여 배의 당김을 멈추게 하는 약을 정맥 주사로 맞지만, 빨리 태어난 작은 아기가 입원 가능한 시설(신생아 집중치료실: Neonatal Intensive Care Unit: NICU)이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

